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97



Contents

※ 2025.09.18(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9.11.~2025.09.17.)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정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본격화로 탄소중립을 성장 기회로 전환(2025.09.16)1
- 환경부,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 등 5개 국정과제 확정(2025.09.16)1
- 부산 기장군, 탄소중립 연계 정신장애 인식개선 사업 추진(2025.09.11)1
- 진주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력투구(2025.09.11)2
-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위, 종이 없는 업무보고 진행(2025.09.11)2
- 구례군,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개최(2025.09.11)3
- 전주시, 맞춤형 탄소중립 시민교육 활발히 추진(2025.09.11)3
- 수원특례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협력 간담회 개최(2025.09.12)4
- 성북구 '탄소중립 성북절전소', 이클레이(ICLEI) 우수사례 선정(2025.09.12)4
- 원주시, 하반기 탄소중립교육 프로그램 본격 운영(2025.09.12)4
- 부산 중앙동 새마을단체,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천 캠페인 전개(2025.09.12)5
- 임창취 경기도의원, GH에 경기 RE100 및 탄소중립 역할 주문(2025.09.12)5
- 김제시, 하동 수소충전소 준공으로 탄소중립도시 도약 본격화(2025.09.12)5
- 탄소배출권거래제, 기업 생존 위협 논란(2025.09.13)6

■ **AI 분야 7**

-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AI 대전환이 핵심"(2025.09.11)7
- 정부, '쉬었음 청년' 발굴 및 AI 전문 훈련 지원(2025.09.11)7
- 제조업 AI 전환 위해 1000여 개 기업·대학 연합 출범(2025.09.11)7
- 새 정부, AI·신재생에너지 국가 의제 반영...지역 체감은 아직(2025.09.11)8
- 새 정부, 신규 원전 보류...'AI발 전력수요' 급증 속 '제2의 탈원전' 우려 확산(2025.09.11) ..8
- 전주서 '피지컬 AI 토론회' 성황리 개최(2025.09.11)9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광주 AI 산업 성과와 과제(2025.09.11)9
- "24시간 민원비서·돌봄...광주를 최고의 AI 도시로 만들 것"(2025.09.11)9
- 서대문구, '서울 콜라보레이션 청년 성공 창업스쿨' 개최(2025.09.11)10
- 울주군 "AI 인공지능 스피커,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에 효과"(2025.09.11)10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1**

■ **탄소중립 분야 11**

- 국내 맞춤형 축산 온실가스 배출계수 구축 완료, 2050 탄소중립 기여(2025.09.16)11
- 공주시환경교육센터, '탄소중립 캠퍼스' 실천 문화 확산(2025.09.11)11
-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한국 기업과의 탄소중립 협력 강조(2025.09.11)12
- 부산항만공사-SK이노베이션, 부산항 탄소중립 실현 협력(2025.09.12)12
-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시민 참여 '광명탄소중립 순환교육' 추진(2025.09.12)12
- 연천군탄소중립지원센터, '그린 플러스, 탄소 마이너스' 특강 개최(2025.09.13)13

- 부산항, 북극항로·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에너지 물류거점으로 도약(2025.09.16) 13
- HD현대중공업-동서발전, 재생에너지 공급 및 탄소중립 협력(2025.09.16) 14
-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AI·플랫폼, 소비환경 개선과 예측 어려운 위험 동반"(2025.09.11) 14

■ **☞ AI 분야 15**

- 자본시장연구원, 'AI와 금융투자업의 혁신' 컨퍼런스 개최(2025.09.11) 15
- 경과원, 'AI·ICT 융합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 제기(2025.09.11) 15
- 태안교육지원청, 인공지능(AI) 리터러시 이해 강연 진행(2025.09.11) 15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6**

■ **☞ 탄소중립 분야 16**

- LS일렉트릭, 아산시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협력(2025.09.11) 16
- SC제일은행, 영업용 차량 하이브리드로 교체 통한 탄소중립 실천(2025.09.11) 17
- 렉스이노베이션-동신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하이테크 상호협력 협약(2025.09.12) .. 17

■ **☞ AI 분야 18**

- 포스코홀딩스, '산업용 AI-로봇 경진대회' 개최(2025.09.11) 18
- 오아시스마켓, AI 무인계산기 '루트100' 공개(2025.09.11) 18
- 아모레퍼시픽, AI 기반 피부자극 자동진단기술 발표(2025.09.11) 19

- 삼성전자, 국내 AI 경쟁력 압도적 1위...글로벌 시장 격차는 여전(2025.09.11) 19
- 코스콤, 'KOSCOM AI Agent Challenge 2025' 참가자 모집(2025.09.11) 19
- 오픈AI, 한국법인 출범...국내 기업과 파트너십 강화 선언(2025.09.11) 20
- 새마을금고, 전용 생성형 AI 도입 위한 시범사업 추진(2025.09.11) 20
- SK하이닉스, 네이버클라우드와 'AI 솔루션' 경쟁력 강화 협력(2025.09.11) 21
- 주차·배달·노인 돌봄...AI·로봇, 아파트 주거 환경 혁신(2025.09.11) 21
- KT, 자체 개발 AI '믿:음'으로 콜센터 디지털화 선도(2025.09.11) 21
- CJ대한통운, 'AI·글로벌' 인재 확보 위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2025.09.11) 22
- DB하이텍, 차세대 전력반도체 공정 개발로 전기차·AI 시장 공략(2025.09.11) 22
- 알서포트, 동남아 최대 IT서비스 기업에 AI 회의록 솔루션 공급(2025.09.11) 23
- 넥서스, DMCC 포럼서 블록체인·게임·AI 협력 청사진 제시(2025.09.11) 23
- 청년 취업자 급감 속 30대 '쉬었음' 역대 최다...대학은 국제화로 활로 모색(2025.09.11) · 2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정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본격화로 탄소중립을 성장 기회로 전환(2025.09.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혁신 기술인 기후테크(Climature Tech) 산업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기후·에너지 전환을 국정 의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후테크 관련 스타트업 및 투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함.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집중투자, 국내외 시장 선점 지원, 그리고 법·제도 기반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기후와 에너지 전환은 대통령실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에 추진되는 관련 정책은 매우 강력한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정부는 현장과 긴밀하게 맞닿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임
	<p>☐ 환경부,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 등 5개 국정과제 확정(2025.09.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가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포함하는 기후·환경 부문의 5개 핵심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이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 구체적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구체적인 이행전략 수립,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수립, 그리고 국가 전체의 기후적응 역량 강화 등을 주요 핵심 과제로 제시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이외에도 미세먼지 관리의 강화, 안정적인 물 공급 시스템 구축,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고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국정과제에 포함됨.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할 것을 약속함
지자체	<p>☐ 부산 기장군, 탄소중립 연계 정신장애 인식개선 사업 추진(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탄소중립 실천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같이(가치) 그린(Green)'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로부터 매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우 긍정적인 반응과 지지를 얻음. 환경보호와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은 지역 내에 위치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복지 시설의 이용자와 일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다양한 방식의 환경보호 실천 활동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됨. 이를 통한 상호 교류 증진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 완화와 지역사회 통합 기여에 대한 높은 기대를 모음 -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기장군 대변항 일대에서 '줍깅' 환경정화 활동과 더불어 국립부산과학관을 방문하는 체험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함. 향후 더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계획함
	<p>□ 진주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력투구(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진주시가 '2050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함.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함 - 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더불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갖춘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함 -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적극 지원하며, 수소 및 전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노력을 전개 중임
	<p>□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위, 종이 없는 업무보고 진행(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소속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진행될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과정을 모두 '종이 없는 회의'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함. 의정활동에서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실천 사례가 됨 - 회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인쇄물 대신 전자 문서로 전면 대체하고, 위원들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개인 PC 등의 전자기기를 활용함.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여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친환경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뚜렷한 방침을 세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미영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거창한 선언보다 작은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그 의미를 강조함. 앞으로도 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밝힘
	<p>□ 구례군,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개최(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 구례군이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지리산역사문화관 일원에서 '2025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성대하게 개최함.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여러 유관기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됨 - 행사 기간 동안에는 핵심 주제관을 비롯하여 약 40여 개의 관련 기업관, 그리고 친환경 폴리마켓 등이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임. 특히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을 위하여 흙 놀이터, 텃밭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풍성하게 준비함 -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 AI 코딩캠프와 글로벌 어린이 AI 그림그리기 대회도 박람회와 연계하여 함께 열림. 환경, 농업, 기업, 지역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음
	<p>□ 전주시, 맞춤형 탄소중립 시민교육 활발히 추진(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전주시가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을 매우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올해 연말까지 총 2만 30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시민강사가 직접 학교나 기관으로 찾아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강사 교육'은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10개의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음 -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들의 눈높이에 정확히 맞춘 '탄소중립 아동극'의 경우, 급증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약 13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임. 이를 통해 세대와 세대를 잇는 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수원특례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협력 간담회 개최(2025.09.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이 지역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주민실천단과 함께 공식적인 간담회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 - 이번 간담회에는 주민실천단 임원진뿐만 아니라 수원시청 및 수원도시재단 등 관련 기관의 핵심 실무진들이 다수 참석함. 산업단지와 연계한 문화 사업, 수인선 유휴 철도 공간의 활용 방안, 황구지천 생태축 복원 등 다양한 의제를 심도 있게 토의함 - 이찬용 위원장은 주민실천단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과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함. 이번 간담회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
	<p>□ 성북구 '탄소중립 성북절전소', 이클레이(ICLEI) 우수사례 선정(2025.09.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대표적인 정책인 '탄소중립 민관협력 거버넌스 성북절전소'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즉 이클레이(ICLEI)의 공식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됨. 이를 통해 국내외 여러 지방정부에 공유 및 확산되는 성과를 거둠 - '성북절전소'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으로, 시민단체의 창의적인 제안을 성북구가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으로 뒷받침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민관협력 정책 모델로 평가받음 - 2025년 현재 초기 3개소에서 시작하여 총 121개소로 대폭 확대되어 활발히 운영 중임.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성북구의 확고한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전 세계적인 롤모델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됨
	<p>□ 원주시, 하반기 탄소중립교육 프로그램 본격 운영(2025.09.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안 관내 초·중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함.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이해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함 - 교육은 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과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에서 진행되는 놀이·체험 방식을 병행하여 제공됨. 상반기 교육에는 총 3,528명이 참여했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9점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은 탄소중립의 생활 속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핵심적인 주제로 설정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강의 콘텐츠와 체험 교구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임
	<p>□ 부산 중앙동 새마을단체,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천 캠페인 전개(2025.09.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에 소속된 새마을단체가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시기에 맞추어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 이번에 진행된 캠페인은 영화제를 맞이하여 중구를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법을 홍보하고, 중앙동 관내의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음 - 노주희 중앙동장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탄소중립 실천이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됨
	<p>□ 임창휘 경기도의원, GH에 경기 RE100 및 탄소중립 역할 주문(2025.09.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경기 RE100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GH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함 - 임 의원은 이러한 목표 달성이 단순한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서 경기도의 미래 경제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생존 전략임을 여러 차례 강조함. 또한 모듈러 건축 확산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함 - 이에 후보자는 RE100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도시 단위의 종합적인 접근과 궁극적인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답변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약속함
	<p>□ 김제시, 하동 수소충전소 준공으로 탄소중립도시 도약 본격화(2025.09.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최근 하동에 신규 수소충전소의 준공식을 성공적으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개최하고 본격적인 상업 운영에 돌입함. 이는 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 시로의 실질적인 전환을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충전소는 총사업비 67억 원을 투입하여 시간당 10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최신 설비와 용량을 갖춘 시설로 구축됨. 이를 통해 일반 수소 승용차와 대형 버스를 동시에 충전하는 것이 가능해짐 - 이번 친환경 충전 인프라의 확충을 계기로 관내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김제시의 수소차 보급 사업 확대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음
	<p>□ 탄소배출권거래제, 기업 생존 위협 논란(2025.09.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탄소배출권 거래제 할당계획을 두고, 국내 산업계에서는 생산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됨.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양이 줄고 유상할당 비율이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임 - 특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2030년까지 50%로 대폭 확대될 경우, 이는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 구매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비용을 가중시킬 것으로 심각하게 전망됨 - 산업계에서는 현실적인 감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강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없이 기업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함.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요구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AI 대전환이 핵심"(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8월 고용동향과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함. 8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 6000명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력하게 강조함 -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또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기존 채용인원 유지 및 추가 채용에도 힘쓸 것을 당부함
	<p>☐ 정부, '쉬었음 청년' 발굴 및 AI 전문 훈련 지원(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쉬었음 청년' 발굴부터 구직 및 재직자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인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함. 장기 미취업, 구직, 재직 청년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방침임 - 고용노동부는 고졸, 군 장병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 이들에게는 포용적 일경험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을 유도함 - 또한, 구직 청년 5만 명에게는 미래 유망 분야인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수료생에게는 현장 직무 경험까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 생계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됨
	<p>☐ 제조업 AI 전환 위해 1000여 개 기업·대학 연합 출범(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국내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1000여 개에 달하는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과 함께 '제조 AX 얼라이언스'라는 대규모 동맹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함. '제조 AX 1등 국가' 도약이 목표임 - 이번 얼라이언스는 2030년까지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로 하며, 이를 위해 완전 자율주행차 양산과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개발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함. 10개 산업별 분과로 나뉘어 운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산업부의 AI 관련 예산을 얼라이언스의 주요 프로젝트에 최대한 배정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민관 펀드를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며, AI 테스트베드와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
	<p>□ 새 정부, AI·신재생에너지 국가 의제 반영...지역 체감은 아직(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광주·전남의 핵심 현안들이 국가 의제로 격상되었지만,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옴. 성과와 과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임 - 광주시는 인공지능(AI) 2단계 'AX 실증벨리'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6자 TF가 구성되었음에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전남도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강화 정책에 따라 지역 발전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제도, 인프라, 사회적 수용성의 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
	<p>□ 새 정부, 신규 원전 보류...'AI발 전력수요' 급증 속 '제2의 탈원전' 우려 확산(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이끌 김성환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함. 원전 업계와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짐 -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 대통령 역시 신규 원전 건설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하며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를 강조함 - 이에 따라 확정되었던 11차 전기본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추세 속에서 장기적인 전력 수급 안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전주서 '피지컬 AI 토론회' 성황리 개최(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미래전략 기술로 부상한 물리 인공지능(Physical AI)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됨.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 등에 접목되는 3차원 AI 기술임 - 전북은 최근 1조 원대 규모의 피지컬 AI 실증단지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대한민국 피지컬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중요한 기회를 확보한 상황임 -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산업계, 정관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전북의 피지컬 AI 선도모델 수립 방안과 제조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함. 지역 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됨
	<p>□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광주 AI 산업 성과와 과제(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 광주광역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고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큰 성과를 거둠. 이를 통해 AI 융복합 거점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함 - 총사업비 6000억 원 규모의 AI 2단계 사업을 통해 기업 집적과 도시 생활 혁신을 본격화할 계획이며, 향후 'AI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그러나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군공항 이전 문제는 6자 TF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AI 산업의 성과와는 대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p>□ "24시간 민원비서 · 돌봄...광주를 최고의 AI 도시로 만들 것"(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첨단3지구 인공지능집적단지에서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광주의 AI 중심도시 도약 비전을 제시함. AI 2단계 사업을 통해 변화될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임 - 이번 선포식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처음 공개되며, 21개 AI 기업과 광주 유치 업무협약(MOU)도 체결됨. 또한 2조 5000억 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한 시민결의 퍼포먼스도 진행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발표에서는 AI 공원, 24시간 AI 민원비서, AI 돌봄 및 주치의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혁신 과제가 제시됨. 강기정 시장은 광주를 최고의 AI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함
	<p>□ 서대문구, '서울 콜라보레이션 청년 성공 창업스쿨' 개최(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청년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창업자 등을 위하여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대문청년창업센터에서 '서울 콜라보레이션 청년 성공 창업스쿨'을 개최함. 창업 단계와 기업 특성에 맞춘 다양한 전문 강연으로 구성됨 - 이번 창업스쿨에서는 해외 진출을 위한 관세 전략,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TIPS)' 운영사 대표의 투자유치 전략, 그리고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특강 등 창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콘텐츠를 제공함 - 이외에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전략 교육과 창업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창업가 힐링 프로그램'도 마련됨. 이성현 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p>□ 울주군 "AI 인공지능 스피커,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에 효과"(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시행 중인 'AI스피커 스마트케어사업'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독거노인을 신속하게 구조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호흡 곤란을 겪던 60대 남성이 AI 스피커를 통해 119에 구조 요청을 함 - AI 스피커는 SOS 기능을 통해 119에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전달했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함. 지난달에도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던 70대 독거노인이 AI 스피커를 통해 구조된 사례가 있었음 - 울주군은 지난 3월부터 고독사 위험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AI 스피커 스마트케어 사업을 추진 중임. 독거어르신 가정에 AI 스피커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국내 맞춤형 축산 온실가스 배출계수 구축 완료, 2050 탄소중립 기여(2025.09.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이 소와 돼지 등 국내 주요 축종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측정하는 장내 발효 부문의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 17종의 등록을 최종적으로 완료함.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육환경에 맞는 정확한 메탄가스 산정이 비로소 가능해짐 - 과거에 사용하던 국제기구(IPCC)의 기본값 대신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된 이 배출계수를 적용한 결과, 2022년 기준 장내 발효로 인한 전체 메탄 배출량이 기존 방식 대비 약 10.4% 더 낮게 산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번에 개발이 완료된 국가 고유 배출계수는 향후 국가 온실가스 공식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것이며,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임
지방기관	<p>☐ 공주시환경교육센터, '탄소중립 캠퍼스' 실천 문화 확산(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시환경교육센터가 국립공주대학교에서 개최된 동아리발표회 현장에서 '지구를 위한 우리의 약속, 탄소중립 생활실천'이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내걸고 체험형 부스를 운영함.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함 -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이 기후 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의 환경동아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함. 폐현수막을 활용한 실천 서약, 재활용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 - 공주시환경교육센터는 이번 성공적인 대학 캠페인을 중요한 시작점으로 삼아, 앞으로 지역 내 초·중·고교 학생들은 물론 다양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한국 기업과의 탄소중립 협력 강조(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글로벌 종합반도체기업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가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함. 이 회사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빠른 2027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선도적 기업임 - ST의 대표적인 주력 제품인 STM32 마이크로컨트롤러 시리즈는 동급의 경쟁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특징임. 이를 통해 한국의 여러 고객사들이 설정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설명 - 최근에는 국내 최대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과 '책임감 있는 제품 제공에 대한 업무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함.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방향성과 ST의 사업 전략이 일치하여 향후 한국 시장에 더욱 집중할 계획임
	<p>□ 부산항만공사-SK이노베이션, 부산항 탄소중립 실현 협력(2025.09.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만공사(BPA)가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SK이노베이션과 부산항의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RE100 달성 업무 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함.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노력을 본격화함 - 이번에 체결된 업무 협약에 따라서 양 기관은 부산항 내에 위치한 유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다방면으로 상호 협력할 예정임 - 이러한 양측의 협력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부두 운영사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부산항이 친환경 에너지자립 항만으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p>□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시민 참여 '광명탄소중립 순환교육' 추진(2025.09.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광명탄소중립 순환교육' 2차 사업의 일환으로 '물길 따라'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함.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정화 원리를 체험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광명시에 위치한 유용미생물(EM) 생산시설과 노온정수장, 그리고 안터생태공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물 자원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생태 정화 과정을 몸소 경험하는 시간을 가짐 - 이 프로그램은 재활용(에코버스 타요), 물(물길 따라), 숲(숲길 따라)이라는 3가지 핵심 테마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오는 10월에는 도시 숲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숲길 따라'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음
	<p>□ 연천군탄소중립지원센터, '그린 플러스, 탄소 마이너스' 특강 개최(2025.09.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경기도 지역 탄소중립 선도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 '그린 플러스, 탄소 마이너스'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함. 이번 특강에는 연천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포천시민도 함께 참여하여 의미를 더함 - 자원순환사회적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이 '자원순환으로 만들어 가는 탄소중립 도시 만들기'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진행함.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 저감 방안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함 - 전미애 센터장은 이번 특강이 주민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소중한 자리였다고 그 의의를 평가함.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천형 탄소중립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
	<p>□ 부산항, 북극항로 ·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에너지 물류거점으로 도약(2025.09.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만공사가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와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항을 모든 종류의 친환경 에너지를 수송하고 저장하며 급유할 수 있는 인프라까지 갖춘 종합 물류 거점으로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임 - 만약 북극항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부산항은 아시아-유럽 항로에서 최종 기항지인 '라스트 포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자원의 핵심적인 물류 거점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됨 - 이를 위해 대규모의 스마트 항만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고, LNG와 메탄올, 암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니아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에 대한 병커링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임. 정부 지원과 공사 자체 자금, 그리고 국내 에너지 기업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함</p>
	<p>□ HD현대중공업-동서발전, 재생에너지 공급 및 탄소중립 협력(2025.09.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표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과 발전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함. 특히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계약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함 - 이번 협력은 한국동서발전이 직접 개발한 영남권의 지붕태양광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대기업이 직접 도입하는 국내 첫 번째 사례임. 이는 지역 내 분산에너지의 본격적인 활용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하여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친환경 패러다임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명확히 밝힘
	<p>□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AI·플랫폼, 소비환경 개선과 예측 어려운 위협 동반"(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제10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에서 남동일 부위원장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 신기술 환경이 소비 환경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협 또한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 그는 AI를 악용한 사기,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의 확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는 문제로 인한 소비자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경고함 - 특히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해 국가 간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AI 기술 발전과 소비자 보호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힘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자본시장연구원, 'AI와 금융투자업의 혁신' 컨퍼런스 개최(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원 28주년을 맞이하여 'AI와 금융투자업의 혁신'을 주제로 하는 의미 있는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이번 행사에서는 AI 기술이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혁신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룸 - 연구원들은 AI 특허 분석을 통해 금융투자 산업 내 AI 활용 동향을 진단했으며, AI 기술 발전의 핵심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투자 패러다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미래 투자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망함 - UBS의 전문가는 금융기관을 위한 '에이전틱 AI'를 “디지털 동료“로 정의하며,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함. 패널토론에서는 AI 기술의 금융업 적용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짐
지방기관 지방기관	<p>☐ 경과원, 'AI·ICT 융합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 제기(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방위산업 동향과 경기도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방위산업 육성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함. 방위산업을 고용 창출과 첨단기술 확산을 견인하는 전략 산업으로 규정함 - 경기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산업체가 위치해 있으며,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 및 군부대가 집적되어 있어 융복합 시너지 창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됨 - 보고서는 주요 제안 사항으로 AI·소프트웨어 기술 융합을 통한 방산 첨단화, AI 기반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 경기 북부 지역 방위산업 육성 등을 제시함. 경기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함 <p>☐ 태안교육지원청, 인공지능(AI) 리터러시 이해 강연 진행(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이 관내 고등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AI 리터러시'의 저자인 김용성 교수를 초빙하여 인공지능(AI) 리터러시 이해를 주제로 하는 특별 강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강연은 우리 삶의 대부분 영역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기술인 AI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기술 대전환 시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특별히 마련됨. AI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저작권, 환각현상 등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됨 - 강연에 참석한 한 학생은 AI와 디지털 시대의 미래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AI 활용과 함께 스스로 깊이 있는 사고와 학습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힘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LS일렉트릭, 아산시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협력(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S일렉트릭이 아산시, LS사우타, 삼성이엔지와 함께 아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공식적으로 체결함. 이를 계기로 아산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미 있는 민관 협력의 시작을 알림 - 참여한 각 기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고유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아산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함. 특히 LS일렉트릭은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에너지 관리 컨설팅을 제공 - 할 예정임 - 충청남도 아산시는 2030년까지 관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 이번 협약은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중요한 지역 기반 탄소중립 추진 사례로 주목받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SC제일은행, 영업용 차량 하이브리드로 교체 통한 탄소중립 실천(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제일은행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경영 강화 전략의 중요한 일환으로, 현재 운용 중인 영업용 차량 약 200대 전부를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저공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함. 해당 교체 작업은 올해 11월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임 - 이번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서 연간 약 98.24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만 4800그루를 새로 심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적 효과를 가짐 - 이러한 결정은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이 설정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글로벌 목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임. SC제일은행은 그룹의 방침에 발맞춰 실질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 나감
대학교	<p>□ 렉스이노베이션-동신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하이테크 상호협력 협약(2025.09.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솔루션 기업 렉스이노베이션과 동신대학교가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춘 탄소중립 하이테크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함. 대학과 기업의 교육-연구-사업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양 기관은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 현장실습 프로그램 제공, 시제품 제작 지원, 테스트베드 실증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개발(R&D)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특히 해외 유학생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 트랙을 마련함 - 이번 협력의 범위에는 미래 유망 분야인 폐배터리의 재사용 기술과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이력관리 영역까지 모두 포함됨. 분산에너지 기술과 융합하여 비용과 탄소를 동시에 절감하는 혁신적인 실증 모델을 구축할 계획임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포스코홀딩스, '산업용 AI-로봇 경진대회' 개최(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홀딩스가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산업용 AI-로봇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미래 핵심 기술인 제조 AI 및 산업용 로봇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포스코그룹의 핵심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임 - 전국 32개 대학에서 총 84개 팀이 참가하여 1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오른 7개 팀은 다관절 협동로봇과 4족로봇 분야에서 주어진 복잡한 미션을 수행하며 기량을 겨룸. 대상팀에게는 총 4000만 원의 상금과 더불어 포스코그룹 입사 지원 시 가산점 혜택이 주어짐 - 포스코홀딩스 측은 이번 대회가 AI와 로봇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밝은 미래를 직접 체험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고 높이 평가함. 향후 철강 및 이차전지소재 분야에 AI·로봇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제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계획임
<p>민간기업</p>	<p>☐ 오아시스마켓, AI 무인계산기 '루트100' 공개(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아시스마켓이 서울 강남에 신규 매장을 열면서, 세계 최초로 실시간 상품 인식이 가능한 혁신적인 인공지능(AI) 무인계산 시스템 '루트100'을 처음으로 선보임. 고객은 구매할 상품을 레일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편리함을 경험 - '루트100'은 사전에 학습된 AI가 자율주행 비전센서 기술을 응용하여 상품의 위치나 모양에 관계없이 0.5초 이내에 99.99%의 정확도로 실시간 인식함. 이는 세계 특허를 확보한 기술로, 유통테크 업계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음 - 오아시스마켓 강남점은 '루트100'을 활용한 100% 무인계산 매장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는 대기 없는 간편한 결제 환경을 제공함. 향후 고속형과 보급형 모델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아모레퍼시픽, AI 기반 피부자극 자동진단기술 발표(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모레퍼시픽이 최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 기반 피부 자극 자동 진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함. 관련 연구 논문은 유럽접촉피부염학회(ESCD)의 공식 학술지 'Contact Dermatitis' 온라인판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둠 - 이 AI 진단 모델은 전문가가 판정한 8만 3천여 건의 방대한 피부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평가 및 검증 데이터에서 98.3%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함. 특히 무자극 반응에 대한 민감도는 99.7%에 달해 매우 높은 신뢰성을 입증함 -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에 평가자의 눈에만 의존하던 방식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며 일관성 있는 피부 자극 진단이 가능해짐.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피부 안전성 평가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
	<p>□ 삼성전자, 국내 AI 경쟁력 압도적 1위...글로벌 시장 격차는 여전(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의 종합 평가 결과,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보유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국내 기업 191개를 대상으로 6개 부문을 평가함 - 삼성전자는 AI 특허 등록, 특허 피인용, 논문 등재, 논문 인용, 기술 인력, 전공 인력 등 6개 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총점 600점으로 종합 1위에 오름. 2위 네이버(162.9점), 3위 LG(155.9점)와 큰 격차를 보임 - 그러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세계 3대 AI 학회 논문 게재 건수에서 알파벳(820건) 등에 크게 뒤처진 59건에 그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이 재확인됨
	<p>□ 코스콤, 'KOSCOM AI Agent Challenge 2025' 참가자 모집(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IT 전문기업 코스콤이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KOSCOM AI Agent Challenge 2025' 공모전을 개최하고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임. '금융의 미래를 연결하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됨 - 이번 공모전은 차세대 금융 AI 에이전트 활용을 위한 MCP 서버 개발을 주제로 하며, 참가자들은 실시간 금융 데이터 분석, 개인화 자산 관리 등 4개 분야 중 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구현하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4년제 대학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이라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며, 총상금 규모는 2600만 원임. 우수상 이상 수상팀에게는 코스콤 사장상이 함께 수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짐
	<p>□ 오픈AI, 한국법인 출범…국내 기업과 파트너십 강화 선언(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한국법인 '오픈AI 코리아'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국내 기업·학계·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힘. 이는 오픈AI의 아시아 세 번째, 세계 열두 번째 지사임 -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자 핵심 파트너 국가”라고 평가하며, 첨단 인프라, 혁신적인 기업, 기술 친화적인 소비자를 보유한 '폴스택' 생태계를 글로벌 AI 허브로 선택한 배경으로 꼽음 - 오픈AI는 이미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으며, 향후 반도체·하드웨어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함. 또한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소버린 AI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할 의향도 내비침
	<p>□ 새마을금고, 전용 생성형 AI 도입 위한 시범사업 추진(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전용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함. 창구 업무 수행 시 활용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이 목표임 - 이번 시범사업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내규 및 업무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지식 질의응답 챗봇의 성능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업무 관련 자료를 더욱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됨 - 새마을금고는 3분기 중에 이번 용역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여 약 8개월간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생성형 AI 시스템의 본격적인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SK하이닉스, 네이버클라우드와 'AI 솔루션' 경쟁력 강화 협력(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응용 환경에서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품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대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네이버클라우드와 전략적인 업무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다고 발표함 - 이번 협약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메모리 대역폭과 용량은 물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최적화가 AI 서비스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떠오른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협약을 통해 SK하이닉스는 실제 AI 서비스 환경에서 차세대 AI 메모리와 스토리지 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고 최적화를 추진함. 또한 네이버클라우드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에서 CXL, PIM 등 AI 특화 제품군을 검증하여 성능을 극대화할 방침임
	<p>□ 주차·배달·노인 돌봄...AI·로봇, 아파트 주거 환경 혁신(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건설업계에서도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려는 열기가 매우 뜨거움. 건설 과정뿐만 아니라 완성된 주거 환경에도 로봇과 AI를 적용하여 '미래형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입주민 만족도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현대건설은 재건축 단지에 로봇이 전기차 충전, 주차, 배달 등의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로봇 친화형 단지'를 제안함. 삼성물산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홈 AI 컴패니언 로봇 서비스 실증을 시작함 - 주차에 AI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이미 대세가 되었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AI 기반 자율주행 주차 로봇 '파키' 도입을 제안함. 스마트홈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아파트의 첨단 기술 도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p>□ KT, 자체 개발 AI '민:음'으로 콜센터 디지털화 선도(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가 업계 최초로 구축한 인공지능 고객센터(AICC)에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민:음'을 성공적으로 접목하면서 상담 편의 전반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음. '민:음'은 상담 중 실시간으로 최적의 답변을 추천함 - '민:음' 도입 이후 고객센터 직원 1명이 고객 1명을 상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초 단축되었으며, 이를 전체 직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4500시간의 업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단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상담사들은 확보된 여유 시간을 고객 케어 활동에 집중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는 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AICC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자체 고객센터 혁신을 넘어 AICC를 B2B 및 B2G 사업으로 확장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음. 현재 약 300여 개의 기업 및 공공기관이 KT의 AICC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음
	<p>□ CJ대한통운, 'AI·글로벌' 인재 확보 위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J대한통운이 오는 24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며, 미래 물류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확보에 나섬. 특히 로봇, 인공지능(AI), 글로벌 사업 관련 직무를 중점적으로 선발할 예정임 - 이번 채용은 일반전형과 글로벌 트랙 전형으로 나뉘어 진행됨. 올해 상반기 신설된 글로벌 트랙 합격자는 미국, 인도 등 전략국가 현장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SCM) 프로젝트와 사업관리·재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됨 - CJ대한통운은 로봇·AI 기반 자동화와 운영구조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 인재육성 제도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핵심 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있음
	<p>□ DB하이텍, 차세대 전력반도체 공정 개발로 전기차·AI 시장 공략(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DB하이텍이 차세대 전력반도체인 650V 전계모드(E-Mode) 갈륨나이트라이드(GaN) 고전자이동도 트랜지스터(HEMT) 공정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 전기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고성장 분야 공략에 나섬 - GaN 소재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고전압, 고주파, 고온에 강하며 전력 효율이 높아 차세대 전력반도체로 각광받고 있음. GaN 시장은 연평균 약 4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DB하이텍은 이번 공정 개발을 시작으로 2026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공정을 개발할 예정이며, 충북 음성 상우캠퍼스에 클린룸을 확장하여 GaN을 비롯한 차세대 반도체 생산능력을 현재 대비 23%가량 늘릴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민간기업</p>	<p>□ 알서포트, 동남아 최대 IT서비스 기업에 AI 회의록 솔루션 공급(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 솔루션 전문기업 알서포트가 베트남 최대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인 'CMC 글로벌'에 자사의 인공지능(AI) 회의록 솔루션 'AI레포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동남아시아 디지털 전환(DX) 및 AI 전환(AX) 시장 선점의 발판을 마련함 - CMC글로벌은 'AI레포트' 도입을 통해 다수의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하는 회의 기록 및 공유 과정을 자동화할 계획임.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효율성과 전반적인 업무 생산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AI레포트'는 알서포트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결합된 솔루션으로, 99.8%의 높은 음성인식 정확도와 최대 20명의 발언을 동시 구분하는 성능이 특징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줌 등 주요 화상회의 플랫폼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음 <p>□ 넥서쓰, DMCC 포럼서 블록체인·게임·AI 협력 청사진 제시(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넥서쓰(NEXUS) 장현국 대표가 코엑스에서 열린 두바이복합상품거래소(DMCC)의 'Made for Trade Live'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 기업들이 두바이에서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블록체인, 게임, 인공지능(AI)을 꼽고 협력 청사진을 제시함 - 장 대표는 패널 토론에서 “넥서쓰는 DMCC 내에 NEXUS HUB를 설립하여 글로벌 게임사와 협력하며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다”며 한국의 혁신이 두바이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소개함 - 넥서쓰는 지난 4월 두바이 DMCC에 현지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게임사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음. 이번 포럼은 한국 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함
<p>대학교</p>	<p>□ 청년 취업자 급감 속 30대 '쉬었음' 역대 최다...대학은 국제화로 활로 모색(2025.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29세 청년 취업자가 1년 새 21만 9000명 급감하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 절벽이 심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구직활동을 포기한 30대 '쉬었음' 인구도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심각한 상황임 - 정부는 이러한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 생애 1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2027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장기 미취업 청년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함</p> <p>- 한편,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은 국제화 경쟁에 나서고 있음. 서울대학교는 80년간 유지해 온 4층 체계를 5층으로 확대하여 국제처를 신설하고, 외국인 학생과 교수를 대폭 유치하여 대학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음</p>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